

##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행보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 차 례 ●●●

1. 배경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행보
3. 평가

## 주요 내용 ●●●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출범 이후 실크로드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란 ‘중국의 꿈 (中国梦)’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외교를 통한 대규모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중국 지도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연선국가 간 교통·물류, 해상을 연결하여 44억 명의 인구와 시장을 긴밀하게 통합하는 국가전략임.
  - 5세대 지도부는 해외순방을 통해 경제, 정치, 안보를 아우르는 장기비전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 중임.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해외순방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제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제안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선국가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있음.
-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시진핑 국가 주석은 아시아 및 유럽과 미국 등 40개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유럽 및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27개국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일대일로 경제외교 행보를 보임.
- 중국 경제외교 행보의 목적은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 발굴,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연계 강화로 평가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금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은 경제외교를 통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인프라 투자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발굴할 예정임.
  - 또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연선국가 간 연계 강화로 연선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1. 배경

■ 2013년 9월부터 현재(2016년 3월)까지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및 유럽과 미국 등 40개국,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유럽 및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27개국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경제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해외순방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 제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제안 등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선국가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고 있음.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총 64개 국가 및 지역을 포괄하는 세계 최장 길이자 최대 범위의 경제회랑이 구축될 예정임.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2013년 9월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순방 중 제기한 구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임.<sup>1)</sup>

■ 시진핑 정부가 2013년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처음 제기한 후부터 현재까지 연선국가 지도층과 회담을 지속하면서,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음.

- 중국정부는 그동안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경제회랑 건설을 가속화하고, 일대일로 건설에 필요한 금융플랫폼을 건설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왔음.<sup>2)</sup>
-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연결하는 △ 중국-파키스탄 △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 중국-몽골-러시아 △ 유럽-아시아 △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잇는 6개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을 추진 중임.
- 이미 2014년 12월 29일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조성하고, 2015년 6월 29일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다자간 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설립됨.

1) 일대일로는 육로를 연결한 ‘일대(一帶,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로를 연결한 ‘일로(一路,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丝绸之路))’로 구성됨.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 중국-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발트해) △ 중국-중앙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 △ 중국-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양 등을 잇는 도로 및 철도 건설을 중점 추진함.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 연안 항구와 인도양, 남태평양 등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고효율 운송통로 구축을 핵심 목표로 추진함.

2) 2015년 8월 6일, 북경사무소 브리핑, 「일대일로 경제회랑 건설추진동향」, 2015년 11월 9일, 북경사무소 브리핑 「일대일로 금융플랫폼」 참고.

## 2. 중국의 일대일로 경제외교 행보

### 가. 일대일로 관련 주요 행보

표 1. 중국의 경제외교 주요 행보(2013년~현재)

| 지역   | 방문 국가                                                | 방문 목적                                                                                                                                                                                                                                                                                                                                                                                                                                                                         |
|------|------------------------------------------------------|-------------------------------------------------------------------------------------------------------------------------------------------------------------------------------------------------------------------------------------------------------------------------------------------------------------------------------------------------------------------------------------------------------------------------------------------------------------------------------|
| 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자흐스탄) 일대일로 건설 추진 및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 건설 강화</li> <li>- (러시아) 에너지, 금융, 고속철도 등 분야 32건 각종 계약 및 총 250억 달러의 투자협정 체결</li> <li>- (벨라루스) 중국은 일대일로 실현을 위해 인프라 건설 부문에 10억 달러 차관 제공</li> </ul>                                                                                                                                                                                                                                               |
| 아시아  |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한·중 FTA 협력 가속화 및 에너지, 환경, 스마트제조 등 협력 강화 및 한·중 FTA 연내타결 추진</li> <li>- (인도네시아) AIIB 참여 공식 제안</li> <li>- (말레이시아)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 채택, 지역통합 가속화 및 경제무역 투자, 금융협력 강화</li> <li>- (태국, 메콩강지역 경제협력지도자 회의) 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메콩강 경제권 협력 전략프레임 사업 추진</li> <li>- (브루나이, 아세안+3 정상회의) 지역금융망 건설 추진, RCEP 협상 가속화</li> <li>- (파키스탄) 에너지 및 교통인프라 등의 산업협력 강화</li> <li>- (베트남) 해상, 육상, 금융 분야에 공동협력팀 설립</li> <li>- (미얀마) 민생분야 협력 강화 및 인프라 건설 경제지원</li> </ul> |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 건설 부문 투자와 관련한 프로젝트 체결</li> <li>- (이집트) 인프라 건설분야 10억 달러 차관제공 및 대규모 계약 체결</li> <li>- (이란) 중·이란 간 교역규모 확대</li> </ul>                                                                                                                                                                                                                                                                                                      |
| 유럽   | 영국, 스위스, 벨기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루마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설립</li> <li>- (스위스) 위안화 역외시장 개설,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 지분 제공</li> <li>- (벨기에) 중·EU 협력 심화 및 각 부문 협력 강화, 중·EU 물류센터 구축 협의</li> <li>- (독일) 산업, 정보화, 과학교육, 환경보호 등 20여 개 분야 총 20억 유로의 정부 간 협력협약서 및 계약 체결</li> <li>- (프랑스)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금융 등 50개 부문의 300억 달러 협약 체결</li> <li>- (이탈리아) 첨단제조업, 우주항공, 스마트도시, 에너지환경, 바이오의약 등 신 흥 산업 20여 개 총 80억 유로의 계약 체결</li> <li>- (루마니아) 대형 협력사업 협력을 위한 TF팀 설치 및 경제협력 가속화</li> </ul>      |

표 1. 계속

| 지역   | 방문 국가                                         | 방문 목적                                                                                                  |
|------|-----------------------------------------------|--------------------------------------------------------------------------------------------------------|
| 남미   | 브라질,<br>아르헨티나,<br>베네수엘라,<br>페루, 칠레            | - (브라질) 브릭스 신개발은행 설립계획 발표 및 최종 합의<br>- (페루) 남미대륙횡단철도 MOU 체결                                            |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br>앙골라, 케냐,<br>짐바브웨,<br>남아공,<br>에티오피아, | - (나이지리아, 세계경제포럼) 균형적 성장을 위한 아프리카와의 포용적 성장 및 원조 확대<br>- (남아공)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총회 참석 및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발표 |

자료: 『财经国家周刊』(2015), 「2013-2015年习近平主席出访路线图」, 2015년 12월 총 157기; 『财经国家周刊』(2015), 「2013-2015 年李克强总理出访路线图」, 2015년 12월 총 157기, 재정리.

## 나. 유라시아<sup>3)</sup>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유라시아 주요국가를 방문함.

그림 1. 중국의 유라시아 경제외교 주요 행보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6. 4. 11).

- [카자흐스탄] 중·카자흐스탄 양국은 주로 에너지, 상호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는 등 일대일로 관련사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

3)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방문 시 카자흐스탄에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제안함과 동시에 중국기업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 문서 체결식 및 중·카 간 천연가스 도관 제2기<sup>4)</sup> 개통식에 참석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12월에 개최된 ‘중·카자흐스탄 총리 간 제2차 정기회담’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위해 정책개선 가속화 및 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을 강조
- 시진핑 주석은 2015년 재방문 시 지난 2년여 동안 추진한 물류협력기지 사업 등 중·카자흐스탄 간 일대일로 건설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 안보 및 국제 현안 부문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러시아] 2013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8차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브릭스 기금조성에 대해 논의한 이후, 2014년과 2015년 5세대 지도부가 방문하여 경제, 인프라 건설 등 분야에 정부 기업 간 프로젝트 협력이 진행
- 2015년 5월 시진핑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금융 △고속철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32건의 각종 계약 및 총 25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
- 2014년 10월 리커창 총리는 ‘제19차 중·러 총리 간 정상회담(中俄重九第十九次定期会晤)’에서 △무역 △교통 △금융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50여 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및 기업 간 협력을 체결
- [우즈베키스탄]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순방한 이후 2013년 11월 리커창 총리가 재방문하여, 각종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 방문 시 중·우즈베키스탄 간 △자유무역지대 협상 △에너지 협력 확대 △인프라 시설 가속화 △공업특구 및 농업시범단지 공동건설 △공자학원 설립 추진 △우호도시 수립 등 총 150억 달러 규모의 31개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
- 2013년 11월 리커창 총리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특별 산업지역 추가 설치 △중국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석탄채굴단지 현대화 사업 △화학단지 건설 등에 관해 협의하고, 양국간 협력분야를 △농업 △교통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전 산업으로 확대
- [타지키스탄] 시진핑 주석은 2014년 9월 11일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국간 △경제무역 △에너지 △농업 △아프가니스탄 문제 △반테러 분야의 상호 협력을 합의
- 특히 양국은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도로 △화력발전소 △광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sup>5)</sup>과 같은 공업생산 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타지키스탄 간 에너지 운송 사업에 적극 투자할 것을 강조
-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타지키스탄] 시진핑 주석은 2014년 9월 13일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열린 제14차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테러리즘과 마약 범죄 등 국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안보센터 구축을 제안

4)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천연가스 도관은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중국과 중앙아시아 천연가스도관의 일부분으로 1기 공정은 2009년에 준공을 마쳐 가스가 개통되었으며, 2기는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한 도관으로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

5)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의 타지키스탄 구간은 중국·중앙아시아 가스관 D선이라고 부르며, 타지키스탄 구간은 기존의 A선, B선, C선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을 기점으로 하지만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파미르 고원을 지나 중국 서부의 신장(新疆)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계획임.



- 또한 △지역경제 단일화 △국경 없는 운송 △SCO<sup>6)</sup> 금융기구 창설 등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SCO 회원국에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을 밝히며, 회원국간 에너지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SCO 식량안보포럼 개최를 제안
- [벨라루스] 2015년 5월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건설 △문화 및 지방 교류협력 확대 등 운명공동체 수립을 위한 4개 부문 20여 건의 협의를 체결
-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 실현을 위한 교통, 운송, 통신 등 인프라 건설 부문에 10억 달러 수준의 차관을 제공 및 중·벨라루스 공업단지 건설을 통해 중국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기로 합의

표 2. 중국의 유라시아 경제외교 주요 행보

| 국가     | 방문기간                     | 주요 논의내용                                                                                                                                                                                       |
|--------|--------------------------|-----------------------------------------------------------------------------------------------------------------------------------------------------------------------------------------------|
| 카자흐스탄  | 시진핑 주석<br>(2013년)        | -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제한함과 동시에 중국수출입은행(中国进出口银行),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银行), 중신그룹(中信集团), 따탕그룹(大唐集团) 등 중국기업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 문서 체결                                                                              |
|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중·카자흐스탄 총리간 제2차 정기회담) 금융, 투자, 인적왕래 등 관련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개선을 가속화하고, 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을 언급                                                                                                          |
|        | 시진핑 주석<br>(2015년)        | - (중·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물류협력기지 사업 가동 등 중·카자흐스탄간 ‘일대일로’ 건설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 지역 안보 및 국제 현안 부문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 러시아    | 시진핑 주석<br>(2013년, 2015년) | - (제8차 G20 정상회의) 브릭스 기금조성 논의(2013년)<br>- 양국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금융, 고속철도 등 각 분야 32건의 각종 계약 및 총 250억 달러의 투자협정 체결(2015년)                                                                                |
|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제19차 중·러 총리간 정상회담) 경제무역, 교통, 금융, 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50여 개 총 10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및 기업간 협력 체결<br>○ 특히, 우주, 에너지, 금융, 교통인프라 등 전략적 대규모 프로젝트 협력                                                          |
| 우즈베키스탄 | 시진핑 주석<br>(2013년)        | - 양국은 자유무역지대 협상, 에너지 협력 확대, 인프라 시설 가속화, 공업특구 및 농업시범단지 공동건설, 공자학원 설립, 우호도시 수립 등 총 150억 달러 규모의 31개 프로젝트 계약 체결                                                                                   |
|        | 리커창 총리<br>(2013년)        | -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특별 산업지역 추가 설치, 중국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 석탄채굴단지 현대화 사업, 화학단지 건설 등 합의                                                                                                                |
| 타지키스탄  | 시진핑 주석<br>(2014년)        | -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중국이 SCO 회원국에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50억 달러의 차관 제공, 회원국간 에너지 정책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SCO 식량안보포럼 개최 제안                                                                                        |
| 벨라루스   | 시진핑 주석<br>(2015년)        | -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실크로드 경제벨트 공동건설, 문화 및 지방 교류협력 확대 등 운명공동체 수립을 위한 4개 부문 20여 건의 협의 체결<br>○ 중국은 ‘일대일로’ 실현을 위한 교통, 운송, 통신 등 인프라 건설 부문에 10억 달러 차관 제공 및 중·벨라루스 공업단지 건설을 통해 중국기업의 진출 확대 합의 |

자료: 본문내용 정리.

6)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정치·경제·과학기술뿐 아니라 문화, 환경보호 등 다방면의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에 설립한 정부 간 기구.

## 다. 아시아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을 방문함.

그림 2. 중국의 아시아 경제외교 주요 행보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6. 4. 11).

- [한국]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 2015년 10월 리커창 국무총리가 방한하여,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UN 안보리 결의안 이행 △6자 회담 재개 추진 △높은 수준의 포괄적 중·한 FTA 연내 타결 등에 대해 협의
- 한·중·일 3국은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지도자회의’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sup>7)</sup>) 등 역내 단일화 공동추진 및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sup>8)</sup>G20 등 지역과 다자 틀 내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7)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중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 +6’ FTA를 말한다.

8)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자로 1989년 11월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와 회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범정부 협력 기구. 현재 회원국은 ASEAN 7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및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중남미 3개국(멕시코, 페루, 칠레), 오세아니아 3개국(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미주 2개국(캐나다, 미국)과 러시아 총 21개국으로 구성됨.



- [인도네시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3년 10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全面战略合作伙伴关系)'로 격상하기로 합의함과 동시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제안하고, 2015년 4월에 재방문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 [APEC 정상회의] 201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아태지역의 수송과 에너지 부문의 인프라를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개발 프로젝트의 자금을 제공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를 제안<sup>9)</sup>
-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 협력 확대 △남남 협력 개척 △남북협력 추진을 강조, 향후 5년 내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인재양성 훈련을 실시하고, 연내 '반둥정신'<sup>10)</sup> 함양을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 개최를 약속
- [말레이시아] 나지브 라자크 총리는 2013년 10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sup>11)</sup>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신(新)실크로드 구축 제안 등에 관해 논의, 2015년 재방문한 리커창 총리와는 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 제도의 시행을 논의 후 발표
- 중국과 말레이시아 간 교역규모는 2013년 기준 948억 달러를 기록해 중국은 지난 4년 연속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말레이시아 또한 지난 5년간 아세안 지역 국가 중에서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부상
- 한편 2013년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생산력 확대 △사법 △항구 △식품안전 △싱크탱크 분야 등 20개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태국] 리커창 총리는 2014년 12월 19일 프라윗 찬 오차 총리와의 회동을 통해 양국간 △해상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협력업무팀 개설 △인프라 협력업무팀 개설 △금융협력업무팀 개설 등 3대 협력업무팀 개설을 제안
- 또한 △해상 △육상 △금융 분야에 8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교류를 비롯한, 문화, 교류협력 등 추진
- [태국, 메콩강지역 경제협력 지도자회의] 리커창 총리는 2014년 12월 20일 방콕에서 열린 '제5차 메콩강지역 경제협력 지도자회의'<sup>12)</sup>에 참석, '메콩강 경제권 협력 신(新)10년 전략프레임(大湄公河次区域6国将确定经济合作新十年战略框架)'를 통해 중점 협력 분야를 비롯한 우선 협력사업을 확정

9)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역내 연결성을 강조, 인프라 건설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경제외교를 통한 해외 에너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함.

10) 1995년에 개최한 반둥회의에서 채택한 평화 10원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아프리카 여러 국가 사이의 연대 정신.

11) 2013년 시진핑 주석 방문 시 총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경제무역협력 5개년 계획 2013-2017(中华人民共和国和马来西亚两国政府经贸合作五年计划 2013-2017)」을 체결함.

12) Great Mekong Subregion Cooperation의 약자로 메콩강 유역에 인접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6개국이 협력과 상호보완을 위해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이 발족한 협의체.

-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 로드맵은 메콩강 경제권의 종합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은 메콩강 경제권의 인프라 건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브루나이]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0월에 개최된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sup>13)</sup>와 제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sup>14)</sup>에 참석
- [아세안+3 정상회의]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0월 19일 개최된 제16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RCEP 협상 가속화 △지역 금융안전망 건설 추진 △식량안전 등 강조
- 특히 리커창 총리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해 △해양경제 △해상 상호연계 △환경보호 △과학연구 △어업협력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남중국해 영주권 분쟁 해결, 안보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언급
- [스리랑카] 시진핑 주석은 2014년 9월 16일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등 20개 협력프로젝트 추진 계약 체결 및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또한 콜롬보 항구도시 공동건설 프로젝트에 14억 달러를 투자, 콜롬보 항구의 3분의 1을 ‘중국성(中国城)’으로 개발, 스리랑카 중앙은행과 1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
- [인도] 시진핑 주석은 2014년 9월 17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인도 투자 확대와 교역 증대를 위해 향후 5년간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 [파키스탄] 시진핑 주석은 2015년 4월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가진 맘논 후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파키스탄 간 경제회랑 건설을 중심으로 △과다르항<sup>15)</sup> △에너지 △교통인프라 △산업협력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력에 전략적 틀을 마련
- 또한, 중국은 △도로와 철도 △가스관과 발전소 건설 등에 각각 340억 달러, 120억 달러의 투자 계약을 체결, 과다르항의 40년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
- [베트남]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5일 응웬 푸 쯙 서기장과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영주권 분쟁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억제 및 관리, 분쟁당사자국 행동수칙 제정 가속화 등 기존 합의 사항을 재확인
- 양국 정상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롯한 기초시설 분야 및 군사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으며, △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술 투자 △철도 및 교통 △관광 △금융 △경제무역 △문화와 교육 등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13)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한·중·일 3개국을 포함시킨 정상회의로 동남아시아 지역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된 ASEAN은 1997년부터 창립 30주년을 계기로 정상회의 개최 시마다 한·중·일을 초청하여 회의를 열고 있음. 한·중·일 3개국은 정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없으나 지역의 상호 관심사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14) East Asia Summit의 약자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를 목표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정상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협력 모색을 위한 회의.

15) 인도양 북부의 아라비아해에 위치한 과다르항은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석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로, 세계 석유의 20%가 운송됨. 중국은 향후 과다르항에서 신장(新疆)을 잇는 철도와 송유관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 [미얀마] 리커창 총리는 2014년 11월 14일 수도 네피도에서 가진 테인 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농업 △금융 등의 분야에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고,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에 총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을 약속
- 또한 중·미얀마 간 △농업협력위원회 설립 △청소년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양국간 민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표 3. 중국의 아시아 경제외교 주요 행보

| 국가    | 방문기간              | 주요 논의내용                                                                                                                                                                          |
|-------|-------------------|----------------------------------------------------------------------------------------------------------------------------------------------------------------------------------|
| 한국    | 시진핑 주석<br>(2014년) | - (중·한 경제통상협력포럼) 개방을 통한 이익공동체 구축,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 문화교류 강화, 양국 청년간 상호교류 등을 건의                                                                                                   |
|       | 리커창 총리<br>(2015년) | - 통상, 환경보호, 과학기술, 검역, 인문교류 등 17개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한·중 FTA 연내 타결 합의<br>- 양국의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대중창업 만인혁신과 창조경제, 중국제조 2025와 제조업 혁신 3.0 등을 연계하여 협력 강화, 양국 경제 발전모델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공동발전 |
| 인도네시아 | 시진핑 주석<br>(2013년) | - (APEC 회의) 인도네시아에 AIIB 참여 제안<br>- 경제부문의 인프라시설 확충, 금융 산업 육성, 관광교류 확대 등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무역 증진, 중·인도네시아 간 통합 산업단지 조성, 어업 협정 등 282억 달러 규모의 협정 21건 체결                           |
| 말레이시아 | 시진핑 주석<br>(2013년) | - 아세안공동체 비전 2025 채택, 지역통합 가속화 및 경제무역 투자, 금융협력 강화                                                                                                                                 |
|       | 리커창 총리<br>(2015년) | - 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 제도 시행 발표                                                                                                                                      |
| 태국    | 시진핑 주석<br>(2013년) | - (메콩강지역 경제협력 지도자회의)일대일로 추진을 통한 메콩강 경제권 협력전략 프레임 사업 추진                                                                                                                           |
| 브루나이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아세안+3 정상회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한 해양경제, 해상 상호연계, 환경 보호, 과학연구, 어업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남중국해 영주권 분쟁 해결, 안보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 등                                                                 |
| 스리랑카  | 시진핑 주석<br>(2014년) | - 화력발전소 건설,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등 20개 협력프로젝트 추진 계약 체결 및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 인도    | 시진핑 주석<br>(2014년) | - 중국의 인도 투자 확대와 교역 증대를 위해 향후 5년간 200억 달러 투자 합의                                                                                                                                   |
| 파키스탄  | 시진핑 주석<br>(2015년) | - 중·파키스탄 간 경제회랑 건설을 중심으로 과다르항 건설, 에너지, 교통인프라, 산업협력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협력에 전략적 틀 마련<br>○ 중국은 도로와 철도, 가스관과 발전소 건설 등에 각각 340억 달러, 120억 달러의 투자 계약 체결, 과다르항의 40년 운영권 확보 등                  |
| 베트남   | 시진핑 주석<br>(2015년) | - 양국 정상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비롯한 기초시설 분야 및 군사 협력 강화 합의<br>- 산업단지 조성, 첨단기술 투자, 철도 및 교통, 관광, 금융, 무역, 문화와 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                                                            |
| 미얀마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 농업, 금융 분야에 협력 심화 합의,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건설에 총 80억 달러 규모의 경제지원                                                                                                      |

자료: 본문내용 정리.

## 라. 중동

-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6년 첫 외교행보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시작으로 이집트, 이란 등 중동 3개국을 순방함.

그림 3. 중국의 중동 경제외교 주요 행보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6. 4. 11).

- [사우디아라비아]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19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에너지 공조를 통해 에너지 협력수준 제고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국의 에너지 전략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
  -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 무역과 투자편리화를 통해 원자력에너지, 우주위성, 신에너지 등 3대 첨단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1+2+3’ 협력구도 가속화 합의
- [이집트]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21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민간항공 △전력 △행정수도 건설 등 분야에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
  - 향후 인프라 건설 부문 투자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협의하고, 중국 경제사절단은 이집트 기업들과 △전기 △운송, 인프라 등 12개 6,040만 달러 규모의 12개 계약을 체결
- [이란] 시진핑 주석은 2016년 1월 22일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교역 규모확대(10년 내 6,000억 달러) △자유무역구 개설 △일대일로 협력 △고속철도 및 원전 프로젝트의 협력을 논의

표 4. 중국의 중동 경제외교 주요 행보

| 국가      | 방문 기간             | 주요 논의내용                                                                                                                                                      |
|---------|-------------------|--------------------------------------------------------------------------------------------------------------------------------------------------------------|
| 사우디아라비아 | 시진핑 주석<br>(2016년) | - 정상회담에서 3대 첨단 분야(원자력, 위성, 신에너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1+2+3' 협력구도의 가속화 협의                                                                                         |
| 이집트     | 시진핑 주석<br>(2016년) | -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민간항공 △전력 △행정수도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억 달러 차관 제공<br>-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프로젝트에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체결을 협의, 중·이집트 기업간 전기, 운송, 인프라 등 12개 분야에서 6,04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
| 이란      | 시진핑 주석<br>(2016년) | -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10년 내 양국 교역규모를 6,000억 달러로 확대, 자유무역구 개설, 일대일로 협력, 고속철도 및 원전 프로젝트의 협력을 논의                                                                         |

자료: 본문내용 정리.

## 마. 유럽

- 중국 5세대 지도부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가를 방문함.

그림 4. 중국의 유럽 경제외교 주요 행보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6. 4. 11).



- [영국] 2014년 리커창 총리 방문 시 에너지, 투자,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총 30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런던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5년 시진핑 주석 방문 시 △원자력 건설 △ 금융 △ 부동산 △ 최첨단 과학기술 등 28개 부문에 300억 파운드 규모의 협력을 체결
  - 또한, 시주석 방문 시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3,500억 위안으로 확대 △후룬통(沪伦通) 협력 △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경제발전 방안을 포함한 양자관계 발전에 대해 협의
- [스위스] 리커창 총리는 2015년 1월 20일 시모네타 소마루가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첨단제조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현대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
  - 중국은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동참을 제안했으며, △ (취리히)위안화 역외시장 개설 △ (500억 위안)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지분제공 △ (스위스 내) 중국은행의 지점 개설을 위한 제반 구축 등을 협의
- [벨기에]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하여 헤르만 반 롬페이 상임의장과 회담에서 「중·EU 전면적 전략파트너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关于深化互利共赢的中欧全面战略伙伴关系联合声明)」을 발표하고,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샤를 미셀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중·벨기에 간 협력을 논의
  - 2014년 시진핑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정책협력 △파트너관계 조성 △문화 관광 등 교류협력 강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협의
  - 2015년 리커창 총리는 샤를 미셀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금융 △통신 △전자 △ 교육 등 12개 분야 총 180억 유로 규모의 협력을 체결하고, △중·EU 물류센터 구축 △상호투자 확대 지원 △양국간 직항노선 확대 △기후변화 문제 △의약 및 보건 부문 등에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
- [독일] 시진핑 주석은 2014년 3월 28일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독일 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이해와 정치적 신뢰 증진 △포괄적인 실무협력 강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립 등에 협의하고, 2014년 10월 9일 리커창 총리는 메르켈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정부간 협력 협의서를 체결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10월 방독(訪獨) 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산업 △정보화 △과학 교육 △우주 △환경보호 △보건 등 20여 개 총 20억 유로 규모의 정부간 협력협 의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독일 간 비자 간소화 등에도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 인문·사회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
- [프랑스] 리커창 총리는 2014년 7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제3시장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中华人民共和国政府法兰西共和国政府关于第三方市场合作的联合声明)」을 발표하고, 2015년 방불(訪佛)한 시진핑 주석은 11월 29일 올랑드 프랑수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중·프랑스 기업간 협력에 관해 논의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7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에너지 △우주항공 등 전통분야 부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제3시장을 공동개척하기 위해 중·프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디지털 △금융 등 50개 부문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협약 체결
  -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올랑드 프랑수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항공 △원자력 △농업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계약 및 심각한 자금난을 겪는 푸조-시트로엥 그룹에 동평(东风)자동차 그룹이 11억 달러 투자 등 시행

- [기후변화 회의]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30일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를 배출하는 중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를 감축하겠다고 발표
- [네덜란드] 2014년 3월 시진핑 주석은 마르크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주 충칭(重庆) 네덜란드 총영사관 건립, 네덜란드와 중국 중서부 지역간 교류 협력 강화,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건설 관련 공동 타당성 검토 등을 논의
- [핵안보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은 2015년 3월 24일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3회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의 핵안보 조치 및 핵안보관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 신안보관 수립 등을 논의
- [그리스]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월 6일 카를로스 파폴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2015년을 양국 해양협력의 해로 합의하고, △해양 관련 경제 △과학기술 △관광 분야 협력 강화 등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
- 중국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환경 최적화 △법률적 보장 완비 △사업 승인 및 비자 절차 간소화 등에 합의하였으며, 그리스를 중국제품의 유럽 진입을 위한 관문이자 허브로 건설하는 데 합의
- [터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14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MOU(中国、土耳其签署跨境电商合作备忘录)」를 체결하고,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양자·다자 간 통화금융 협력을 통한 결제통화로서의 위안화 거래시스템 개선, 무역과 투자편리화를 위한 위안화 사용 확대 등에 관해 논의
- [G20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1월 15일 터키에서 개최된 제20차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금리인상에 관한 각국의 공조방안 △글로벌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전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 등에 관해 논의
- [이탈리아] 리커창 총리는 2014년 10월 16일 카를로스 파폴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기업의 이탈리아 투자 장려를 위한 법률적 정책 보장 및 취업체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 리커창 총리는 △첨단제조업 △우주항공 △스마트도시 △에너지환경 △바이오의약 등 신흥 산업 20여 개 총 80억 유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
- [루마니아]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1월 25일 빅토르 폰타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고속철 △에너지 등과 같은 대형사업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설치하기로 합의
- [중동부 유럽국가 정상회의] 리커창 총리는 2013년 11월 26일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중국·중동부유럽 국가정상회의<sup>16)</sup>에 참석하여 16개 중부 및 동유럽 국가 정상들과 회동하여, △인프라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협력과 회원국간 100억 달러의 특별 차관을 협의

16)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의 약자로 중국과 중동부 유럽국 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9월 중국의 제안으로 중동부 유럽 16개국(알바니아, 불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이 참여하는 협의체.

표 5. 중국의 유럽 경제외교 주요 행보

| 국가   | 방문 기간             | 주요 논의내용                                                                                                                                                                                                                                      |
|------|-------------------|----------------------------------------------------------------------------------------------------------------------------------------------------------------------------------------------------------------------------------------------|
| 영국   | 리커창<br>(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투자, 첨단과학기술, 금융 등 총 300억 달러 규모 40건의 계약 체결</li> <li>- 또한 철도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함과 동시에 아시아 이외 지역 최초로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의 설립(런던)을 합의</li> </ul>                                   |
|      | 시진핑<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를 기존 2,000억 위안에서 3,500억 위안으로 확대</li> <li>- 후룬통(沪伦通) 협력과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li> <li>- 금융협력의 일환으로 위안화 국제화 동참을 제안</li> </ul>                                                   |
| 스위스  | 리커창 총리<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리히에 위안화 역외시장 개설 및 500억 위안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 지분 제공</li> <li>- 스위스 내 중국은행의 지점 개설을 위한 제반 구축 가속화 협의</li> </ul>                                                                                     |
| 벨기에  | 시진핑 주석<br>(2014년) | - 실크로드 경제벨트,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정책협력, 파트너관계 조성, 문화·관광 등 교류협력 강화에 협의                                                                                                                                                                                |
|      | 리커창 총리<br>(2015년) | - '제17차 중국-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및 금융, 통신, 전자, 교육 등 12개 분야 총 180억 유로 규모의 협력 체결                                                                                                                                                                      |
| 독일   | 시진핑 주석<br>(2014년) | - 포괄적인 실무협력 강화 및 포괄적 전략 동반자 수립 등에 관한 협의 체결                                                                                                                                                                                                   |
|      | 리커창 총리<br>(2015년) | - 산업, 정보화, 과학교육, 우주, 환경보호 등 20여 개 총 20억 유로 규모의 정부 간 협력협약서와 계약 체결                                                                                                                                                                             |
| 프랑스  | 리커창 총리<br>(2015년) | - 양국간 산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기술, 디지털, 금융 등 50개 부문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협약 체결                                                                                                                                                                              |
|      | 시진핑 주석<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원자력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계약 체결</li> <li>-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푸조-시트로엥 그룹에 동풍(东风)자동차 그룹이 11억 달러 투자 등 중국 기업의 합작 투자 시행</li> </ul>                                                                   |
| 네덜란드 | 시진핑 주석<br>(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건설 관련 공동 타당성 검토 논의</li> <li>-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li> </ul>                                                                                                                              |
| 그리스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일대일로' 협력을 강화해 그리스를 중국제품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허브 지역으로 공동 건설                                                                                                                                                                                     |
| 터키   | 시진핑<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전자상거래 MOU(中国土耳其签署跨境电商合作备忘录)」를 체결</li> <li>-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 무역과 투자편리화를 위한 위안화 사용 확대 등 논의</li> <li>- (G20 정상회의) 미국 금리인상에 관한 각국의 공조방안, 글로벌 저성장 극복을 위한 성장전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 등에 관해 논의</li> </ul> |
| 이탈리아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첨단제조업, 우주항공, 스마트도시, 에너지환경, 바이오의약 등 신항산업 20여 개 총 80억 유로의 계약 체결                                                                                                                                                                              |
| 루마니아 | 리커창 총리<br>(201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중·동부유럽 국가정상회의에 참석 및 고속철, 에너지 등과 같은 대형사업 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 설치 합의</li> <li>- (중국-중동부유럽 국가정상회의) 16개 중부 및 동유럽 국가 정상들과 회동, 무역을 비롯한 인프라, 에너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협력 및 100억 달러의 특별 차관 협의</li> </ul>           |

자료: 본문내용 정리.

## 바. 중남미

- 중국 지도부는 2014년 7월 브라질 방문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쿠바 등 남미 4개국을 순방했으며, 2015년 5월 17일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중남미 4개국을 순방하여 일대일로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진행

그림 5. 중국의 중남미 경제외교 주요 행보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6. 4. 11).

- [브라질]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15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30개 분야에 86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 및 11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리커창 총리는 2015년 개최된 정상회담에 35개 부문 총 270억 위안 규모의 투자협력을 체결
- [브릭스 정상회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15일 제6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신개발은행(NDB)<sup>17)</sup> 설립 계획을 발표

17) The New Development Bank of BRICS의 약자로 2015년 7월 1일 상하이(上海)에서 정식 발족함. 본부는 상하이, 지역본부는 남아공에 위치하였으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필적할 국제금융기구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물류 △전력 △정보의 3대 채널을 구축하고, △기업 △사회 △정부의 3자간 선순환을 실시하여, △기금 △신용대출 △보험의 3가지 융자루트를 개척하는 이른바 '3X3 협력모델'을 제시
- [아르헨티나]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19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수력발전소와 철도 건설을 위해 총 68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고, 중·아르헨티나 간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 중·아르헨티나는 '전략적 파트너 동반자'수립 10주년을 맞아 10년 내 양국교역 규모 5,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기로 협의
- [베네수엘라]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농업 △위성 분야 최첨단기술 등 150여 개 영역 약 700억 달러 규모의 협의를 체결
- 또한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中国石油天然气集团)은 「중·베네수엘라 연합 펀드 1기 2차 석유거래 계약서(中委联合融资基金一期二次滚动油贸合同)」를 체결하고, 석유자원 시장의 다양화 및 석유공급 채널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 에너지 안보능력을 강화
- [쿠바]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22일 요아힘 미겔 디아스 카넬 국가평의회 의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통상 △생명과학 △인터넷 △디지털 TV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체결
- 시진핑 주석은 라울 카스트로 의장과의 회담에서 중남미 유일의 공산당 일당체제인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고, 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 강화 및 투자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 [콜롬비아] 리커창 총리는 2015년 5월 21일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 등 민간교류 확대 등에 대해 논의
- 또한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타당성 공동연구 업무팀을 발족하고, 중국기업의 인프라 건설, 경제개발구역 건설 및 중·콜롬비아 간 비자면제 협정 등을 협의
- [페루] 리커창 총리는 2015년 5월 22일 오안타 우말라 대통령과 회담에서 △철도 △항구 △전력 △통신 △수리 등 10개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
- 특히 리커창 총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연결하는 '남미대륙횡단철도(两洋铁路) 타당성 연구협력 MOU'를 체결해 타당성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
- [칠레] 리커창 총리는 2015년 5월 25일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해 2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
- 또한 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제도<sup>18)</sup>를 시행하여 금융서비스 플랫폼 제공 및 2015년 7월 1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협의

18)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의 약자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 금융시장에서 중국정부가 각 국가마다 일정금액을 정하여 그 안에서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위안화 자금을 갖고 중국 국내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을 말함. 한국은 2014년 7월 800억 위안 규모의 한도를 부여받음.



표 6. 중국의 중남미 경제외교 주요 행보

| 국가    | 방문기간              | 주요 논의내용                                                                                                                                                                                                                                                                                                                                                            |
|-------|-------------------|--------------------------------------------------------------------------------------------------------------------------------------------------------------------------------------------------------------------------------------------------------------------------------------------------------------------------------------------------------------------|
| 브라질   | 시진핑<br>(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교통인프라, 농업, 정보, 물류, 과학기술 혁신 분야 등 30여 개 86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 및 11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li> <li>-(브릭스 정상회의)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설립 계획 발표</li> <li>· NDB는 브릭스 회원국이 각각 100억 달러씩 출자해 500억 달러의 초기 자본금으로 설립, 5년내 자본금 1,000억 달러로 확대</li> <li>· 별도로 위기대응기금을 중국이 410억 달러, 브라질, 러시아, 인도가 각각 180억 달러, 남아공 50억 달러 출자(총 1,000억 달러 규모)</li> </ul> |
|       | 리커창<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장비제조업, 인프라건설, 금융, 항공, 농업, 신에너지, 과학기술 등 35개 부문 총 270억 위안 규모의 협력 체결</li> <li>- (중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물류, 전력, 정보의 3대 채널 구축, 기업, 사회, 정부의 3자간 선순환을 통해 기금, 신용대출, 보험의 3가지 융자루트를 개척하는 이른바 '3X3 협력모델' 제시</li> </ul>                                                                                                                 |
| 아르헨티나 | 시진핑<br>(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수력발전소와 철도건설을 위해 총 68억 달러 차관 제공</li> <li>- 중-아르헨티나간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정을 체결</li> </ul>                                                                                                                                                                                                              |
| 베네수엘라 | 시진핑 주석<br>(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농업, 위성 분야 최첨단기술 등 150여 개 영역 약 700억 달러 협의 체결</li> </ul>                                                                                                                                                                                                                                                               |
| 쿠바    | 시진핑 주석<br>(201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 생명과학, 인터넷, 디지털 TV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결</li> </ul>                                                                                                                                                                                                                                                                          |
| 콜롬비아  | 리커창 총리<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타당성 공동연구 업무팀을 발족하고, 중국기업이 콜롬비아에 도로, 지하철, 공항, 항구 등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개발구역 건설에 적극 동참하며, 관광협력 확대를 위한 비자면제 협정 등을 협의</li> </ul>                                                                                                                                                                                            |
| 페루    | 리커창 총리<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을 연결하는 '남미대륙횡단철도(两洋铁路) 타당성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타당성 공동연구 진행 및 인프라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강화</li> </ul>                                                                                                                                                                                                                        |
| 칠레    | 리커창 총리<br>(201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 외국인투자자(RQFII)제도를 시행하여 금융서비스 플랫폼 제공 및 2015년 7월 1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 협의</li> </ul>                                                                                                                                                                                                                          |

자료: 본문내용 정리.

## 사. 아프리카

- 중국 지도부는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등 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하고,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과 남아공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총회에 각각 참석함.

그림 6. 중국의 아프리카 경제외교 주요 행보



자료: 네이버(검색일: 2016. 4. 11).

- [나이지리아]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월 6일 궈력 조나단 대통령과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인프라 건설과 항공우주 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또한 △경제기술 △의료위생 △항공 △에너지 △광산개발 △상업위성 등 다양한 분야의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31억 달러 규모의 철도건설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기본 협약을 체결
- [나이지리아, 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회의]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월 7일 개최된 제24회 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회의에서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공노선 등 3대 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금융 및 재정 △인력 △빈곤감축 △환경오염 등의 원조 및 차관 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
- [앙골라]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월 9일 도스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투자보호협정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위해 3,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계약을 체결
  - 또한 △수력발전소 건설 △변전소 건설 △아프리카 국가경제무역 연구소 설립 등 1억 7천만 달러의 원조에 합의했으며, △비자면제협정 △민간항공기 직항노선 개설 등 다양한 부문에 협의를 논의
- [케냐]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월 10일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케냐의 기초인프라 사업건설과 식량안보, 생태환경, 공동 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17건의 투자협정을 논의
- [짐바브웨]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1일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경제기술 협력 △기초시설 건설 △용자 및 투자 △야생동물 보호 등 총 10건의 협력을 체결하고,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
  - 또한 중국기업들의 짐바브웨 투자 확대 강화 및 일대일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까지 대아프리카 투자총액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 [남아공]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2일 제이컵 주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중·남아공 간 5~10

년 협력계획 이행 △양국 발전전략 연계 강화 △해양경제 및 에너지 △경제특구 및 금융 등 중점분야에 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

-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 총회] 시진핑 주석은 12월 5일 개최된 회의에서 「중·아프리카협력포럼-요하네스버그행동계획 2016-2018(中非合作论坛-约翰内斯堡行动计划2016-2018)」을 발표하고,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
- [에티오피아] 리커창 총리는 2014년 5월 4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향후 양국 간 △상호신뢰 △상호이해 △평등과 호혜를 기반으로 협력 강화를 협의
- 리커창 총리는 5월 5일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아프리카연합 본부를 방문해 은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 집행위원장과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사업 △농업 △산업화 △빈곤퇴치 △보건 등 분야의 협력 강화 및 인력자원 개발에 관한 지원을 논의

표 7. 중국의 아프리카 경제외교 주요 행보

| 국가    | 방문 기간             | 주요 논의내용                                                                                                                                                                                  |
|-------|-------------------|------------------------------------------------------------------------------------------------------------------------------------------------------------------------------------------|
| 나이지리아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기술, 의료위생, 항공, 에너지, 광산개발, 상업위성 등 분야의 합작 계약 체결 및 131억 달러 규모의 철도건설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기본 협약 체결<br>- (세계경제포럼 아프리카 회의) 금융 및 재정, 인력, 빈곤감축, 환경오염 부문 등의 원조 및 차관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 |
| 앙골라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 및 3,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 합의                                                                                                                                          |
| 케냐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양국은 지역 항공노선 공동운영, 철도 네트워크 건설 등 기초인프라 사업, 식량안보, 생태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공동 과학연구센터 설립 등 17건의 협력 체결                                                                                               |
| 짐바브웨  | 시진핑 주석<br>(2015년) | -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기술 협력, 기초시설 건설, 융자 및 투자, 야생동물 보호 등 총 10건의 협력 체결 및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위해 12억 달러의 차관 제공<br>-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투자 총액을 300억 달러로 확대                                               |
| 남아공   | 시진핑 주석<br>(2015년) | - 정상회담을 통해 중·남아공 간 5~10년 협력계획 이행, 양국 발전전략 연계 강화, 해양경제 및 에너지, 경제특구 및 금융 등 중점분야 등 65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br>- (중·아프리카 협력포럼)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계획 발표                                      |
| 에티오피아 | 리커창 총리<br>(2014년) | - 양국은 아프리카 평화 및 안보 사업지지, 빈곤퇴치, 보건 등에서의 협력 강화 및 인력자원 개발과 양성에 지원 확대를 합의                                                                                                                    |

자료: 본문내용 정리.

### 3. 평가

-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은 그동안 중국정부가 추진해왔던 지역균형 개발정책의 한계에 대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자오진핑(赵晋平) 부장은 경제외교를 통한 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은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도농격차를 해소하고, 중서부 내륙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
-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하는 교역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내 중서부 지역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향후 중국의 남부와 서부로 향하는 교통 축이 강화되고,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및 유럽과 중국이 서로 연결되어 제품(중국)과 시장(유럽) 간 유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일대일로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인프라건설뿐 아니라, 물류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 향후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

■ 중국 지도부는 일대일로 전략 중심의 경제외교 행보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 인프라 건설, 투자 촉진, 자유무역구 건설 등을 수행, 이를 통해 향후 중국·연선(沿线)국가 간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

- 칭화대학 당대국제관계학원 옌쉐통(阎学通) 원장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총 60여개 국가, 전 세계 인구의 63%에 이르는 44억 명, 전 세계 GDP의 30%에 달하는 22조 달러 규모의 경제권이 서로 연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지역에서 장기간 중국의 영향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
- 한편 국자위연구센터 후츠(胡迟) 연구원은 연선국가에 자유무역구 설립을 통해 중·연선국가 간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동시에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

■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용이 소요되므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의 극대화 및 민간자본과 글로벌 기업의 참여가 중요

- 외교부 국제경제사(司) 장쥔(张军) 사장은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AIIB 및 실크로드 기금, 브릭스 국가 신개발은행(NDB) 등 일대일로 금융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한편 일대일로 프로젝트 금융 플랫폼의 활용을 위해 민관협력사업(PPP), 사모펀드 등 다양한 민간자본 뿐 아니라 보험회사, 사회보장기금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기관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필요

■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정신리(郑新立) 이사장은 경제외교를 통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이 주변 국가 및 연선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선국가들은 중국의 시장과 투자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발전 가속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

- 정신리(郑新立) 이사장은 연선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원전 △통신설비 △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연선국가의 인프라 건설 및 각종 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참고자료]

- 『中国和土库曼斯坦建立战略伙伴关系』, 2013. 「一财网」, (9月4日)
- 『中乌关于进一步发展和深化战略伙伴关系的联合宣言』, 2013. 「新华网」, (9月9日)
- 『习近平同荷兰首相会谈建立中荷全面合作伙伴关系』, 2014. 「中国新闻网」, (3月23日)
- 『中国和巴基斯坦联合声明公布』, 2015. 「新华网」, (4月21日)
- 『中国-哈萨克斯坦企业家委员会』, 2014.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7月3日)
- 『李克强出访非洲四国』, 2014. 「腾讯网」, (9月4日)
- 『习近平结束对塔吉克斯坦国事访问』, 2014. 「人民日报」, (9月15日)
- 『中华人民共和国和马尔代夫共和国联合新闻公报』, 2014. 「人民日报」, (9月15日)
- 『中亚天然气管道D线将成新丝路有益互利共赢』, 2014. 「人民网」, (9月25日)
- 『习近平2014年外交行程: 出访7次足迹遍布10国』, 2014. 「新华网」, (11月28日)
- 『解读: 5个词读懂李克强2014年出访』, 2015. 「天山网」, (2月28日)
- 『图解: 习近平2015年首次出访将传递哪些信号?』, 2015. 「人民网」, (4月20日)
- 『中-白俄关于进一步发展和深化全面战略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15. 「环球网」, (5月10日)
- 『李克强对巴西、哥伦比亚、秘鲁、智利进行正式访问』, 2015. 「新华网」, (5月17日)
- 『李克强离开比利时前往法国』, 2015. 「新华网」, (6月30日)
- 『美国人眼中习近平』, 2015. 「腾讯网」, (9月19日)
- 『习近平在联合国可持续发展峰会演讲』, 2015. 「央广网」, (9月27日)
- 『中国和新加坡关于建立与时俱进的全方位合作伙伴关系的联合声明』, 2015. 「新华网」, (11月8日)
- 『习近平APEC讲话: 展现中国新型正面领导力』, 2015. 「腾讯网」, (11月19日)
- 『李克强在韩国经济界欢迎午餐会上的主旨演讲(全文)』, 2015. 「新华网」, (11月21日)
- 『马来西亚各界期待李克强总理首次访马提升双边合作』, 2015. 「国际在线」, (11月24日)
- 『2013-2015年习近平主席出访路线图』, 2015. 「财经国家周刊」, (12月总第157期)
- 『2013-2015年李克强总理出访路线图』, 2015. 「财经国家周刊」, (12月总第157期)
- 『2015年习近平出访图谱』, 2015. 「21世纪经济报道」, (12月31日)
- 『习近平开始访问伊朗中伊成“全面战略伙伴”』, 2016. 「腾讯网」, (1月13日)
- 『中国需要一个什么样的南海?』, 2016. 「光明网」, (2月26日)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한동균(handongjun@hotmail.co.kr)